

美國移民素材小說에 나타난 “脫鄉民의 뿌리찾기”

—안정효의 세 작품, 〈回歸〉, 〈美國人の 아버지〉, 〈荒野〉를 중심으로—

尹 政 憲*

〈차 례〉

- | | |
|----------------------------|------------------------------|
| 1. 序 論 | 4. 버림받은 자의 자기학대와 조국
—〈荒野〉 |
| 2. 돌아오기 위한 조국—〈回歸〉 | 5. 結 論 |
| 3. 코메리컨의 비애
—〈美國人の 아버지〉 | |

1. 序 論

소설이 인간의 존재양상을 갈등의 설정과 해결을 통해 깊이있게 보여 주는 일련의 서사적 모델이라 했을때, 우리는 이를 통해 삶의 가장 원초적이고도 치열한 과편들을 수합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얀 전쟁〉과 〈은마는 오지 않는다〉란 전쟁(월남전과 6. 25동란)소재의 소설로 우리에게 번역작가 아닌 소설가로 인식되기 시작한 안정효의 일련의 이민 소재 소설들이 근자에 들어 주목을 끌게 한다. 이제 살펴 볼 그의 세 중편들(〈회귀〉, 〈미국인의 아버지〉, 〈황야〉)은

* 경일산업대학교 교수

모두 미국으로의 이민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구한말 하와이 이민을 端初로 한 우리의 美國移民史는 최근의 L. A 흑인폭동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꿈의 낙원”이 될 수 없으며, 오랜 세월 동안 교민들은 또 하나의 술한 전쟁들을 치루며 그들의 코리언 타운을 건설해 왔다는 사실이 새로이 주지되어야 할 시점이다. 근자의 통계에 의하면, 문민정부의 출범 등 국내 정치, 경제 제상황의 호전으로 인해 미국교민의 상당수가 다시 국내로 역이주하는 양상이 현저함을 엿볼 수 있어, 이제 우리사회에서 조용히 청산되어가는 “아메리칸드림” 징후의 한 단면을 읽게 한다. 작가 안정효에 의하면 이 세 작품은 모두 <하얀전쟁>의 영역 출판 관계로 미국에 머물렀던 80년대 후반, 작가 자신이 직접 겪은 교민사회의 체험을 토대로 허구화한 것이라 한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새로운 전기를 맞으며 변모, 재정립되어가는 교민사회의 고통의 뒤안길을 문학적으로 절실히 형상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우리 미국교포사회를 바로 보게 하는 소설적 전범을 마련하였다는 최소한의 의의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상정된다.

본고에서는 미국이민을 소재로한 세 작품의 분석을 통해 상당한 역사가 축적된 미국이민사회의 현주소를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 소설문학에 있어서의 소재영역 확장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2. 돌아오기 위한 조국-〈回歸〉

<회귀>¹⁾는 『불교문학』(88. 봄)에 발표되었던 작품으로, 군사정권하의 조악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피안을 찾아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나

1) “<회귀>는 나 자신의 증편소설 <전쟁과 도시>를 미국에서 출판해 보려는 욕심으로 4개월 동안 텍사스에서 영어로 개작하고 있던 기간에 겪은 경험과 한 주일 동안의 뉴욕 여행을 토대로 삼아 만든 증편소설이다. 미국에서 집집마다 찾아가 중고품을 수집해 팔았던 사람은 나중에 한국에 와서 미술평론을 하려다가 지금은 엉뚱하게도 서울시 중구 정동에다 무역회사를 차려 놓았다.”; 안정효, [동생의 연구](책세상, 1990), p. 281.

약한 지식인의 회귀과정을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 국문학 교수로 재직하던 조덕문은 고착된 정치현실 속에서 진실로 자유로워지려 애쓰지만 그가 몸담고 있는 ‘상아탑’은 그런 그를 용납하지 않는다.

덕문이 특히 힘겨워했던 것은 학교에서의 생활이었다. 격렬한 학생 운동과 행정당국의 강압적 정책 사이에서 아무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을 느낀 그는, 학생들 편을 들자니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이 섰고 어용 교수라는 소리도 듣기 싫었으며, 그렇다고 박쥐 노릇을 하기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다. 이념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정치 풍토 속에서 그는 마음놓고 혼자 설 만한 땅이 없었다.²⁾

결국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나뭇대로의 묘책을 생각해 내고는 이를 행동에 옮기는데 그것은 행정당국과 운동권 학생들을 다 같이 공박하는 양비론적 양심선언이었다. 그러나 자신을 해방시켜 주리라 기대했던 이 선언은 오히려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었던 그를 양쪽의 무차별 공격대상으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했고 결국 대학으로부터 사직케 하는 ‘풀링-파워’(pulling-power)로 작용케 했을 따름이다. 그리고 그는 “너무 넓어 한 가지 충격의 파급 효과가 적고, 아늑한 완충 지대가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국제결혼한 여동생을 좇아 단신(그는 노총각 교수였다.) 미국으로 건너 오게 된다. 그러나 미국도 결코 그를 구원해 줄 곳은 아니란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치 않았다. 여동생 수전일가와의 텍사스 생활은 미국식 존재방식에 익숙치 않은 덕문으로 하여금 개체의 존재성마저도 망실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고독감을 심어 주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대학교수란 직책에 걸맞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자괴감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힌다. 생계 활동과 삶의 외로움, 이 두 가지는 덕문이 스스로 선택한 남의 땅, 미국에서 풀어야 할 절대절명의 숙제였던 것이다. 이 두 가지 숙제를 풀기 위해 그는 대학시절 동창들이 이민과 정착한 뉴욕으로 또 하나의 탈출을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나뭇대로의 자기 세계를 건설해 놓고 분명한 미국인으로 살아 가고 있는 동창들과의 괴리감은 아직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덕문을

2) Ibid, 회기, p. 148.

더욱 초조하게 자극하게 되고, 대학시절 짝사랑했던 헤자(베로니카)의 국제결혼을 확인하고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져 기댈 곳이 없어짐을 절감한 그는 한국으로의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삶이란 성장하는 아픔이 평생 계속되는 투쟁의 과정이지만, 덕문은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삶과도, 자신과도 이제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냥 과거의 세계로, 태어 나지 않은 자궁 속의 세계로, 그리고 그 이전 시대로의 환원이 가능하다면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었다. 어디에서도 살아갈 자신이 없어진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무작정 상경하여 창녀가 된 시골처녀처럼.³⁾

그러나 덕문의 귀국은 단순히 패배자로서의 그것으로만 규정될 수는 없다. 인생은 한없는 도피의 연속으로만 이뤄질 수 없으며, 자기신앙의 확립을 통해서만 참된 영위가치를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도피처로 택했던 피안의 땅, 미국이 아이로니컬하게도 이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덕문은 조국을 되찾기 위해 조국을 버렸던 것이다. 한국에서 텍사스의 누이집으로, 다시 동창들의 근거지였던 뉴욕에서 한국으로의 회귀과정은 참된 정착을 위한 방황의 날개짓이었다.

미국은 한국에서 느끼고 깨닫지 못했던 덕문의 의식을 열리게 해 주는 도구화된 공간이었다. 특히나 뉴욕한인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부각되는 덕문의 대학동창들을 통해 그는 미국 땅에서는 영원히 풀릴 수 없는 수수께끼를 들고 끝없이 헤매는 불가항력적인 자신의 실루엣을 반추해 보게 된다.

그리고 뉴욕에도 이미 그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재선과 영진과 베로니카와 헨리와 필립과 다른 뉴욕의 친구들은 이미 이곳에다 고향을 일구어 놓았다. 만일 그들에게 고뇌가 있다면 서울에서 출세한 사람이 가난한 시골 소년 시절을 그리워하는 정도의 향수와, 세상살이에 따르는 흔한 어려움이 있었을 다름이지, 덕문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은 없었다. 역시 그들은 덕문보다 한 수 위였다. 이제는 까마득해

3) Ibid, p. 189.

진 옛날에 그들은 이미 선택하고 행동했으며, 비록 이상은 잃었는지 몰라도 현실은 이룩해놓았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이곳의 삶이 바로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고…….⁴⁾

현실과 이상을 모두 한국에다 두고 몸만 황급히 도망쳐 온 덕문과 꿈을 찾아 온 “아메리카”에다 그들의 영육을 쏟아 부으려는 동창들 사이엔 분명히 출발과 끝이 다른 의식의 상충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작가는 주인공 덕문의 도피처를 미국으로 선정하여 평범한 다른 이민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풍요의 나라 미국이 고국에서 상처받은 자의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는 만사형통의 이상향이 결코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작가의 체험적 전생소설인 <하얀 전쟁>과 <은마는 오지 않는다>에서도 시사된 바처럼 미국이란 절대적 대상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의 추구와 일면 동체에 놓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우리에게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치료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시각의 은밀한 확산이다. 아직껏 우리 사회에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는 시혜국, 해결사로서의 미국의 이미지를 신기루의 껍질을 벗기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 조덕문과 같은 도피자의 시행착오는 근절될 것이며 진정한 “아메리칸드림”의 청산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덕문이 상처입은 곳이 한국이었듯이 그를 치료해 주고 그가 스스로 요양할 곳도 한국이어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는 누구의 문제도 아닌 오직 자신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매달려 그 신념과 주관을 확인하는 철저한 과정을 미국 아닌 한국 땅에서 치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그는 돌아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설정한 덕문과 혜자(그녀는 미국으로 이민 후 베로니카로 개명하고 뉴질랜드인과 결혼한다.)의 관계가 덕문이 방황을 청산하고 귀국하게 되는 대단원의 비장한 메시지에 강력한 견인력으로 작용하지 못함으로써 작가의 본래 의도와 달리 단순한 에피소드적 성격으로 주저앉고 말아, 소설의 극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은 아쉬운 한계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4) Ibid, p. 184.

3. 코메리컨의 비애 -〈美國人の 아버지〉

한국인의 교육열은 가히 세계적이라고들 한다. 일찌기‘상아탑’을 ‘우골탑’이라 불러야 했던 서글픈 내력은 접어 두고라도 소득수준이 높아진 근자에 들어선 많은 외국 유학생-특히 미국으로의-을 양산해내고 있다. 그들 중 소신있게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부모로부터의 무한한 보조를, 따라가기 힘든 공부보다는 졸부 수업에 투자하는 소위 “오렌지족”도 상당수인 모양이다. 부강한 일등국 미국의 풍조를 모방하려는 심리엔 노소의 차이가 없겠지만 그네들의 잘못된 껍데기만 손쉽게 추수(追隨)하려는 철없는 한국 청소년들, 특히 뿌리는 한국인이지만 미국사회에서 미국인으로 살아 가야 하는 이민청소년들에게 미국은 과연 어떻게 비취지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민 1세대인 기성세대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가?

안정효의 〈미국인의 아버지〉(1990. 『현대소설』)⁵⁾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의미심장한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다.

20년전 아내의 강권으로 미국에 이민오게 된 한우식은 청과물 가게와 사무용품 도매상을 거쳐 “오리엔트 투어”란 관광회사로 정착한 착실한 가장이지만 아내를 비롯한 처가식구들에게 둘러싸여 피동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인물이다.

우식은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별로 자신의 삶에서 무엇 하나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없었다. 미국으로 건너 온 이민 자체도 아내가 선택한 행동이었으며, 처음 청과물 가게를 한 것도 아내의 결정이었고, 장인과 장모가 뒤따라 이민을 들어온 다음 식구들이 모두 힘을 합쳐 사무용품 도매상을 하기 위해 직장을 바꾼 것은 청과물 가게를 그냥 계속하고 싶어하던 우식만을 제외한 처가집 식구들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른 결정이었고,

5) “〈미국인의 아버지〉는 작년초에 [현대소설]에 발표했던 작품이고 -중략- 1989년 [하얀 전쟁]이 미국에서 출판되어 책 선전을 위해 한 달 동안 미국의 여러 도시를 돌아 다니던 무렵에 만난 두 사람의 이민 생활 이야기에 균사를 붙여만든 증편들이다.”; 안정효, [미늘](열음사, 1993), p. 269.

-중략-이제는 아이들까지 합쳐 스물세 명으로 늘어난 일족이 살림을 갈라 저마다 다른 분야로 진출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관광회사를 차리자는 말을 아내가 꺼냈을 때, 돈벌이라면 눈에 살기가 등등할 정도인 아내와 처가 식구들한테 너무 오래 시달렸던 우식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었다.⁶⁾

미8군의 용산기지 배차계에 근무하던 우식이 역시 미8군 USO 사무실의 안내역이었던 지금의 아내 임경숙과 결혼하게 된 것은 순전히 적극적인 성향의 그녀에게 수동적인 그가 꼼짝없이 빨려 들어간 때문이었다. 결혼 전 미군들과의 자유분방한 관계에서 이미 짐작했듯이 그녀는 처녀가 아니었으며, 내주장형의 경숙은 “별로 잘 생긴 구석도 없고 섹스에 있어서도 아내에게 흡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력이 강하지도 못한” 이등남편 우식을 그녀에게 만만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결혼후, 손쉽게 경숙은 우식을 휘어잡았고 집안 일은 그녀의 마음먹은 바 계획대로 결정되고 시행되었으며 단지 우식은 아내로부터 결정사항의 사후통고만 받으면 되는 지극히 편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친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게 한 낯선 땅 미국으로의 이민이 그러했고, 이곳에서의 직종선택이 그러했고 처가식구들의 초청이 그러했으며, 그리고 그들의 딸 미아(美雅)의 교육 역시 아내의 일방적 설계에 의해 집행되어졌다.

“우리 애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이요. 그러니 참된 미국인이 되도록 키워야지, 한국에는 가서 살지도 않을 텐데 무엇하러 한국인이 되게 키운단 말예요? 공연히 애국자인 체하면서 자식들이 주체의식의 갈등을 일으키고 가치관이 흔들려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건 현명한 것이 아니에요”⁷⁾

아내의 질서정연하고 양칼진 논리에 당할 수 없었던 우식은 “엄마를 닮아 머리도 좋고 어학 실력도 능해 적어도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나마 미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완벽한 미국인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에

6) Ibid, 미국인의 아버지, pp. 121~122.

7) Ibid, 미국인의 아버지, pp. 124~125.

대견해 하면서 아내의 교육방침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딸 미아는 아버지 우식의 “브로큰 잉글리시”발음에 대해 면박을 주며 교정해 주기도 하고, “스트레이트 A”성적의 최우수 학생으로 <틴, 틴, 틴 에이지>연극의 주연을 맡기도 하는 완벽하고도 자랑스러운(?) 미국인 여고생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은 아버지의 어설플 발음뿐 아니라 그 사고방식(지극히 촌스러운 한국적 도덕관념)까지도 경멸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게 되었다. 축복받은 땅 미국의 떳떳한 청소년으로서 고루하고 무식(?)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딸과 미국인 딸을 둔 안타까운 한국인 아버지의 갈등은 아버지가 딸의 책상 서랍에서 스무 개의 콘돔을 발견한 직후, 정점을 향해 치닫게 된다.

우식은 지진이 일어난 날 우연히 스무 개의 콘돔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미아는 치부름 도둑맞은 듯한 기분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눈치였다. “러버 몇 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뭐가 잘못이라고 그러세요?” 발끈 화가 난 목소리로 미아가 말했다. “그럼 대대는 내가 러버도 준비해 두지 않았다가 프레그먼트 되거나 AIDS라도 걸렸으면 좋겠다는 말인가요?”⁸⁾

여자라면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지극히 동양적 윤리관으로 딸을 훈도하는 아버지에게 섹스는 생리적인 것이며 거기에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너무나 분명한 미국식 논리로 맞서는 한국인이 낳은 미국인 딸 미아 앞에서, 우식은 “주체성과 독립심을 키워 주려다가 안하무인 이기주의자”로 길러져 버린 실패한 교육의 산물을 보는 듯 참담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래도 딸을 포기할 수 없는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한국식 응징은 물리적 완력의 시위밖에는 없었다.

우식은 억울했다. 그리고 분했다. 그가 가장 분하고 억울했던 것은 딸이 잘못이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이었다.

- 중 략 -

그는 식탁을 번쩍 들어 부엌 바닥에다 팽개쳤다. 믹서와 유리잔 몇 개

8) Ibid, 미국인의 아버지, p. 157.

와 설탕 그릇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대디! 뭐하는 거예요!” 미아가 표독스럽게 소리쳤다. -중 략-

우식은 또다시 딸의 뺨을 때렸고, 미아는 부엌 바닥으로 나뒹그러졌다
가 기겁을 해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Help! Help!
Somebody call the police! Please, somebody call the police!”⁹⁾

“외국인들하고 마주앉아 농담을 나눌 때면 남편을 거추장스러워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우식이 농담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 가
끔 그를 멸시하는 표정이 역력하던” 아내의 분신을 그는 딸 미아의 모습
을 통해 보게 된 것이다. 멸시의 차원을 넘어 살벌할 정도의 당당한 적
대감마저 느끼게 하는 딸의 태도에서 우식은 모든 굴욕과 역경을 참으며
코메리컨으로서의 인고의 삶을 감수하면서도 버티어 왔던 마지막 보루가
일시에 허물어지는 소리를 듣는다.

미국이민 1세대들에겐 이제 미국 땅에서의 자립 이상으로 자녀 교육
문제가 심각한 문제의 수위에 육박했음을 이 소설은 말하고 있다. 그리
고 비록 몸은 미국인으로 살더라도 정신의 뿌리는 어디에 두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처절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것은 아내 경숙의 무시와 건
방지고 우매한 한국인 줄부관광객들의 허세에도 이를 악물며 참아냈던
우식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코메리컨의 비극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었
는지, 그 진원지를 찾아내는 작업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4. 버림받은 자의 자기학대와 조국-〈荒野〉

우리는 공안통치 시절 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이 타의에 의해 조국을 버
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지켜 보아왔다. 분단상황이 빚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가슴메이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

9) Ibid, 미국인의 아버지, p. 161.

인공들, 안정효의 <황야>(1991. 『문학정신』)¹⁰⁾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대변해 주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절친한 친구 진학의 근심스러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병구가 미국 땅을 밟는데서부터 시작된다. 인쇄소 사업에 실패하여 형의 연쇄점 일을 도와 주고 있던 병구는 이민간 동창의 힘을 빌어 형의 미국진출을 성취시키고자, 미국으로 건너 온다.

제작년부터 상무라는 직책으로 형 회사로 들어앉아 건성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있던 병구가 그 조사를 맡겠다고 나섰던 데는, 그나마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동원하여 형에게 무엇인지 월급값을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발동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그보다는 모처럼 처음으로 미국을 갈 핑계가 생긴 김에 세 사람의 옛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 무슨 사연이 있길래, 타향 생활이 얼마나 힘겹고 바쁘기에 이렇게까지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어야만 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막연한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¹¹⁾

이처럼 사업상의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훨씬 절박했던 이면적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병구의 미국행은 그러나 쉽사리 그 목적(세 친구, 진학, 세화, 상호와의 만남)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반감계 공항으로 마중나온 상호를 통해 부부였던 진학과 세화의 파탄소식을 접한 병구는 자신이 상상했던 그들 네 사람만의 따뜻한 상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그리고 무엇이 세화를 억울한 이혼녀로 만들었고, 진학을 거대한 미국 땅에서의 초라한 도망자로 변하게 했는지 그 미궁의 수수께끼를 풀어보기로 결심한다. 병구는 유신 정권 초기에 반정부 회곡을 썼다고 대공과 형사들에게 곤욕을 치른 진학이 먼저 미국에 이민가 자리를 잡았던 상호의 도움으로 부인 세화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던 과거를 되새겨 보며, 세화부터 만나 보기로 한다. 그리고 세화를 통해, 병구는 진학이 고

10) “특히 <황야>의 진학으로 등장하는 전 모(某)씨는 그 삶이 무척 뼈 아프게 여겨져서 본인이 그 얘기를 작품(회곡)으로 쓰지 않는다면 나라도 중편으로 쓰고 싶다는 사전 허락까지 받아 두었던 일이 있다. 그러나 이 작품도 막상 잡지에 실고 보니 산만하고 허술한 구석이 너무 많이 보여 여기에 수록할 때는 30매 가량을 잘라버리고 부분부분 손질도 했음을 밝혀 둔다.”; Ibid, p. 269.

11) Ibid, 황야, p. 166

국에서의 피해의식과 미국직장에서의 부적응때문에 세화에게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급기야 그녀와 이혼하게 된 내력을 듣는다.

진학씨는 자신의 고통뿐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내가 받으리라고 상상되는 고통에 대해서도 고민했던 것이 분명해요. 내가 받는 모든 고통이 자기 탓이라는 죄의식 때문이에요. 도대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를 않더군요. 그리고 막상 미국으로 와서도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무슨 돌파구가 생기려니 했던 상호씨와 나의 생각이 헛된 꿈이었구나 하는 게 곧 밝혀졌으니까요.”¹²⁾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반발과 동족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 때문”에 진학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그로 인해 옆에서 더 큰 고통을 치뤄야 했던 세화의 고뇌는 서로를 자유롭게 해방시키기 위해 이혼이란 제도적 장치로 일단 결말지워졌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 땅에서 “행복이 아니라 생존을 추구하는 유목민”으로 방황하고 있을 진학과 그 방황의 끝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중년이 된 세화의 서글픈 모습을 통해 끝나지 않은 한 부부의 비극을 병구는 눈앞에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평범한 소시민의 행복을 마구 짓밟아 버렸던 치사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병구의 이러한 분노는 고생 끝에 시카고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자립한 진학을 직접 찾아가 만나게 됨으로써 보다 구체적 양상으로 현실화되어 진다. 오늘이 있기까지 미국의 여러 도시를, 한국에서의 고문으로 불편해진 다리를 절룩거리며 전전하면서도 진학은 자신을 내던진 조국에 대한 증오만은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난 죽을 때까지 고향에는 돌아가지 않겠어. 그건 내가 쫓겨나다시피 그 나라를 떠나야 했고, 돌아가면 위험하다거나 무섭기 때문이 아냐. 그런 감정은 이제 다 삭아버렸으니까. 내가 돌아가지 않는 건…….”

그는 병구를 뻗히 쳐다보며 잠시 침묵을 지킨 다음 말을 이었다.
“그건 내가 조국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야.”¹³⁾

12) Ibid, 황야, p. 184.

13) Ibid, 황야, p. 201.

그리고 진정으로 진학이 시달리는 것은 “소아마비에 걸린 정치의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조국”에의 망령보다는 그들의 고문에 굴복하고 타향으로 쫓겨 와야만 했던 지식인의 무너진 자존심 때문이란 것을 병구는 알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나는 깨달았어. 고문을 자행하는 자들이 노리는 계약에 내가 넘어가고 말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육체적인 고통에 굴복하고 만 나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지. 나는 굴복한 나 자신을 미워했고, 나를 물리적으로 억압하여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 자들—직접 고문을 저지른 자들로부터 그런 식의 통치를 구사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했고, 단순히 내 주변에 존재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수치심을 인식하게끔 만드는 모든 사람이 미워졌고,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졌어. 그리고 이 수치의 비밀을 아는 모든 사람들, 특히 세화를 피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끝없는 도망을 시작했지만, 어디로 도망을 쳐도 나 자신만은 떨쳐 버릴 수가 없었어.”¹⁴⁾

결국 병구는 세화에게로 돌아 가지 못하는 진학의 “환상적 고뇌”를 “역사적 현실”로 받아들이며 진학과 아쉬운 작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다.

정비공장 앞, 문짝이 부서진 트럭의 옆에 서서 진학은 멀어져 가는 병구의 차 뒷모습을 멀건이 쳐다보고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친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봐야 하는 심정. 매를 맞고 고향을 떠나, 사랑하는 조국으로부터 배반을 당했다고 느끼며, 보복할 대상이 따로 없어 자신만을 학대해온 망명자.—그 고향나라로 돌아가는 친구를 그냥 쳐다보기만 해야 하는 국적 상실자. 내가 세상을 잊고 싶듯이 세상도 나를 잊어주기를 바라며 타향살이를 하는 방랑자.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아 분노한 나머지 민족을 버려야 했던 한 인간.—지상의 낙원에도 황야는 있었다. 지저분한 정비공장 앞에 멍하니 서서, 어쩌면 분노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진학—그는 버림을 받고 황야에 홀로 서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한 인간이었다.¹⁵⁾

이 소설은 도대체 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

14) Ibid, 황야, p. 203

15) Ibid, 황야, p. 205.

게 한다. 무엇이 축복받은 조국에서 유능한 희극작가로 활약했어야 할 진학을 피안의 낯선 땅에서 괄시와 냉대 속에 온갖 육체적 잡노동을 감수케했으며 끝내는 정비공장 부사장으로 둔갑시켜 놓았던가? 조국이 있으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방황하는 자의 비애-조국에 대한 분노를 미국 이민으로 상쇄시키려 했으나 그마저 실패하고 만 진학의 고뇌는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인가? 누가 어떻게 진학의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아줄 수 있나? 여기서 우리는 조국이 미워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그곳에서도 결코 행복할 수 없었던 진학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작가는 한국인 진학이 미국사회에서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좌절을 통해 마침내는 조국고향을 그리지 않을 수 없다는 역설적 코리언 시오니즘(korean-zionism)¹⁶⁾을 현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는 조국의 정치적 성숙과 민중역량의 결집을 통한 소시민사회의 정착이라는 간곡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5. 結 論

지금까지 미국이민을 소재로 한 안정효의 세 작품을 훑어 보았다.

이들 세 작품은 공히 미국이민사회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으며 완벽한 허구가 아닌 실화를 제재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실재론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동질성 이상의 의미는 없다. 다시 말하자면, 각 작품의 정신적 지향점은 각기 다른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귀〉는 미국을 감상적 도피수단으로 삼았던 한 전직 대학교수의 좌절과 개안을 그리고 있다. 미국이 경제적 상승과 정신적 안주 등 개도국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파라다이스가 아님을 주지시킨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나름대로의 경제집단을 이루며 정착한 한인교포들의 피나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16) 시온(zion)은 예루살렘의 언덕으로서, 시오니즘(zionism)이란 유대인들의 고향 수복의지를 뜻한다.

〈미국인의 아버지〉는 미국이민사회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절박한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낯선 땅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한눈 팔 겨를이 없었던 기성세대가 이제 타국에서 그들의 자녀를 과연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해 고뇌어린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음을 이 소설은 강변한다.

〈황야〉는 지난 날 강압적 폭력정권에 의해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한 지식인의 조국에 대한 분노와 그로 인해 낯선 황야에 서게 된 뿌리 뽑힌 자의 비애를 보여 주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남의 땅 미국이 황야에 대비되는 것은 자기의사와 무관하게 조국을 빼앗겨 버린 망명객들에게 있어선, 역설적 회향의 이미지로 남게 된다.

이 작품들은 오늘날 우리 이민사회의 현상적 실체를 문제적 시각에서 총위별로 제시함으로써 이민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다양한 관점으로 견인·확산시켰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화려한 코리언 타운의 이면에는 고향떠난 자들의 치열한 뿌리찾기가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다시 말해 코리언시오니즘을 추구하는—이 작품들은 그러나 제재로 다뤄진 미국이민사회를 작품 속에서 보다 포괄적이고도 적확하게 포착하지 못한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향후 이민소재소설의 숙제인 동시에 우리 소설이 담당하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가능성이기도 한 것이다.